

<2015.01.19.~2015.01.23.>

全北日報

2015년 01월 19일 월요일 001면 종합



**고창 동림지, 가창오리 군무**

17일 오후 철새 도래지인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가창오리 촬영을 위해 전국에서 500여 사진 동호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안봉주 기자

전북연합신문

2015년 01월 19일 월요일 001면 종합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

17일 철새 도래지인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 가창오리들은 3월 초 남쪽으로 이동한다.





**하늘 덮은 가창오리** 17일 오후 철새 도래지인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 가창오리들은 3월 초 남쪽으로 이동한다. 뉴스1

## 가창오리떼 힘찬 비상



17일 오후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무리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쳐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원철 기자





사진으로 보는 세상!  
아름다운 전북이야기

동립지 가창오리 군무의 감동!

울 겨울 고창동립지에서 많은 탐조객들과 사진가들을 감동시킨 가창오리 군무의 감동을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소개한다. 사진 작가들 사이에 매년 여러차례 방문해도 마음에 드는 제대로 된 군무를 촬영하기란 3대기 덕을 쌓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가창오리와 교감하기란 쉽지 않다. 칠고로 가창오리는 몸길이가 약 40cm, 날개 길이가 약 21cm이며 암수에 따라서 깃털색이 다르고 기묘하게 오리과에 속하여 단일 종으로 발파처럼 큰 무리를 지어 활동한다. 가창오리는 러시아 북동 지역인 아나톨, 콜리마, 아나, 인디지르카, 레나, 아무르 강 유역, 오호츠크 해안 및 캅차카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활동한다. 가창오리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큰 무리를 이루어 우리나라에 찾아오며,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서산 A·B지구의 간월송와 복남호에 5만~10만 마리의 떼가 몰려든다. 가창오리는 기온이 낮아지는 11월경에 천수만, 금강 하구, 동립지수지, 해남의 고창암호 및 주남저수지 등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나며 다음해 봄에 북상한다. 가창오리는 겨울 후 수십만 마리가 무리지어 비상하므로 장관을 연출한다. 가창오리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멸종위기 단계 중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수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또한 완양부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I 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사진·글=김종채 기자(kharam796@)

